

# 광주 노래연습장 10일부터 'QR코드' 찍어야 출입 가능

## 광주시, 8개 고위험시설 의무 적용

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관리자와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지난 2일 고위험시설로 선정한 8개 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댄스댄싱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이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애플리케이션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한다.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방문 시 스마트폰으로 개인별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고, 시설관리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방문 관련 정보가 저장된다.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와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 내 저장·관리되고, 이력·연락처 등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파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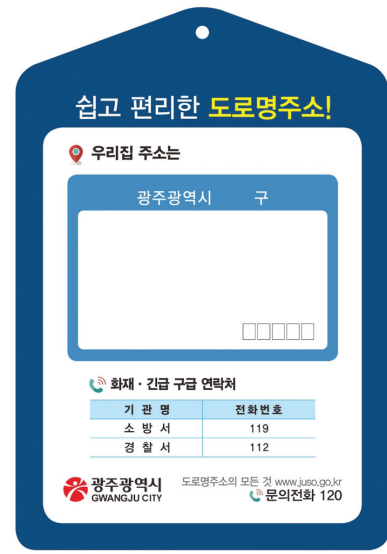
자치구 일선 담당자들은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을 방문해 QR

코드 사용법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와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QR코드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 방문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QR코드로 출입자 파악이 쉬워지고, 방역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긴급신고용' 도로명 주소스티커 1만장 배포

광주시가 8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신고용 도로명주소스티커 1만부를 배포한다.

이 스티커는 전일제대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됐다.

전일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스티커에 주소를 직접 기재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규전일제대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도로명주소를 익숙하게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정확한 주소를 전달할 수 있어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 장마철 대비

### 재난취약시설 집중 점검

광주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와 건설 공사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자치구, 시 안전관리자문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급경사지 44곳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대규모 건축 공사장 등 46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 현장·절개지, 흙 쌓기·지하 굴착 공사 현장, 최근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요 건설공사장이다.

조인호 기자

## 동구, 금연구역 흡연자·금연교육으로 과태료 감면

광주 동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을 받으면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받는 감면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과태료 납부 대신에 감면 또는 면제를 원하는 이에게 ▲금연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와 같은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서구 양동, 민·관 협력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광주 서구 양동 주민센터는 4일 청장년 1인 장애인세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구 장애인복지관, 어울림 사랑 나눔봉사단, 양동위기가구 발굴단 '양동지킴이단', 양동 맞춤형 복지팀 도움으로 추진됐다. 이날 지원 대상자는 뇌병변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저장장바까지 생겨 박스와 잠동사니 등을 쌓아두고 생활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양동 맞춤형복지팀은 관련 유관기관 회원 및 어울림 사랑 나눔봉사단 20여명과 함께 오래된 쓰레기, 가구, 박스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등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다.

## 남구, 통일 꿈 키우는 새싹노트 만든다

광주 남구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및 통일의 필요성, 통일 후 달라질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담은 새싹노트를 제작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중으로 북한의 현황과 의식주, 놀이문화, 남북 분단의 과정 및 통일 이야기를 담은 통일 새싹노트가 발간될 예정이다.

새싹노트에 담긴 내용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광주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주민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초·중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된다.

## 북구, 민생경제 회복·소상공인 지원 총력

광주 북구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북구는 소상공인 지원팀을 신설해 2018년부터 2만8000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 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26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실시해 왔으며, 코로나19가 창궐한 올해에는 총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7월에는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40여곳을 선정해 실·내외 간판, 소규모 인테리어, 위생관리 시설 등 시설 개선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250만원 지원한다.

## 광산구, 생활방역의 날 행사 열고 구 전역 방역

광주 광산구는 5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생활방역의 날' 행사를 열고, 구 전역을 일제 방역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학생들의 학교 등교에 대비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 광산구는 송정1·2동과 도산동 등 구청 주변 5개동에서 참가한 200여명의 시민과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인파 주요 거점을 방역했다. 아울러 광산구 전역에서도 기관·사회단체와 상인,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7,000여명이 참여하는 방역이 이뤄졌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이용성 광주시장이 6일 남구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마치고 위패 봉안소를 찾아 분향을 한 뒤 위패를 뒤으며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 전남도, 중국 수출기업 '온·오프라인' 통합 지원 한다

전남도는 목포대학교 글로벌셀링지역협업센터와 '중화권 온·오프라인 통합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마케팅 제약으로 중국의 소비패턴과 유통경로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으로 대중국 수출시장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베이징에 안테나숍을 개설하고 우수한 전남제품을 전시, 중국인 선호도 조사와 함께 인기상품 판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국 유명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 상점 등을 통해

중국 온라인시장에 전남제품을 집중·판매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 내 전남제품 홍보 강화를 위해 유명 온라인 인플루언서 왕홍을 활용한 생방송으로 안테나숍, 위챗 상점 등에 입점한 전남제품 홍보와 판매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정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부 근무 시간에는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 위아날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하세요.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평균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11,111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1.77배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